로컬플러스

익산소방서, 심신건강 소통간담회

익산소방서(서장 강원석)는 29일 3층 강당에서 직장훈련과 소방공무원 심신건강을 위한 소통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직장훈련에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확립 및 복무점검 전달 및 현장활동 안전사고 예방방지 교육을 진행하고, 김선경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소방공무원 심신건강향상을 위한 소통 간담회를 실시했다.

특히 심신건강향상을 위한 소통간담회는 각종 재난현장에서 참혹한 현장에 자주 노출되는 소방공무원들의 심신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심신건강관리 방법과 PTSD해소 및 예방법, 단계별 스트레스 해소방안과 정신건강 관리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직원들의 현장활동 중 PTSD 사례를 들어보고 치료법과 예방법 등에 대해 간담회를 실시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북한이탈주민 생일 찾아주기' 행사

익산경찰서(서장 이동민)은 최근 익산시 어양동 소재 통일소망 '쉼터'에서 3월 중 생일을 맞이한 북한이탈주민 20명 참가한 가운데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지원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생일 찾아주기"위문행사를 가졌다.

이번 북한이탈주민 3월중 생일을 맞아하여 익산시자원봉사센터(엄양섭 이사장)에서는 매월 마지막 목요일 생일잔치에 케이크 및 빵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익산경찰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매월 생일을 맞은 북한이탈주민들과 동료, 가족들을 초청, 생일 케이크 커팅과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애로사항을 청취, 가정폭력예방 등 4대 사회악 홍보,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에도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총력

군산시가 소나무재선충병 완전 방제 및 숲 복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9일 군산시에 따르면 회현면, 옥산면 등 군산시 면적의 69.7%인 27,529ha를 소나무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감염목과 의심목 등 16만여 본에 대해 방제를 추진해 현재 9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31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완전 방제를 목표로 경찰서 기동대, 군부대, 산불요원 등 전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 줍기 등을 실시하고 피해지역에 대하여 수종갱신 조림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군산시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를 올해 안에 복구하기 위해 중앙부처로부터 국비예산을 확보 중에 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 해망동 자연마당 공사 '한창'

국비 36억원 투입…안전·생태·문화 그랑 콘셉트로 조성

군산시 해망동 일원의 자연마당 조성공사가 12월 준공을 목표로 한창 진행 중에 있다.

자연마당 조성사업은 도심주변의 훼손되고 방치된 공간에 습지 등 다양한 유형의 생물 서식처를 조성·복원해 주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생태 휴식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환경부가 적극 추진하는 사업이다.

군산시 자연마당 조성사업지구는 해신동 일원 59,616㎡로 총 사업비는 36억 원(전액 국비)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지역은 군산시가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 주택 등을 모두 철거한 상태여서 체계적인 생태복원 계획이 절실히 필요했던 지역으로 과거 피난민에 의해 조성되어 몇 년 전까지 주거지로 이용됐던 지역이다.

이번 사업은 군산시를 생태분야 관심지역으로 부각하기 위한 첫 사업으로 마음의 힐링을 추구하는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되고 있다.

자연마당 조성사업의 주요 콘셉트는 그랑(사람들과 동그랗게 어우러져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의미의 순우리말)이란 단어를 활용해 재해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그랑, 생태적 탄력성을 복원하는 생태그랑, 역사와 문화 그리고 지역주민을 잇는 문화그랑에 의해 조성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건물 철거후 방치된 지역에 가시나무, 동백 등을 식재해 생태계를 복원하고 습지 등 친환경적인 시설이 조성된다.

특히 자연재료를 이용해 어린이가 느끼고, 놀고, 체험 할 수 있는 놀이터 공간과 월명공원과 연결되는 산책탐방로가 조성된다.

이와 함께 과거를 잊지 말자는 취지로 산책로 등에 과거 사진을 전시하고 철거전과 같은자리에 우물 등을 그대로 재현한다는 것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자문위원 등을 통한 지속적인 협의로 다양한 생태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이 편안하게 자연을 느끼며 휴식할 수 있는 시민의 힐링쉼터와 볼거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기자

원광대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과학탐구지도사 교육과정' 진행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종)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는 졸업생과 취업준비생 및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과학탐구지도사 교육과정'을 3월부터 6월까지 진행한다.

3월부터 시작된 교육과정은 오는 6월 16일까지 진행되며, 지역네트워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및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함께 지역내 미취업 여성과 3,4학년 여학생 22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졸업생과 취업준비생,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것으로 지역의 숨은 인재발굴과 취업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과학 강사를 육성하고, 중등학교의 '자유학기제' 도입에 따른 전문 강사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교육과정에 참여한 수강자들은 자격증 취득 후 실험실습교사, 방과 후 지도사 및 돌봄교실, 문화센터, 도서관 등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활동하고 창업도 할 수 있으며, 출석률 80% 이상 시 수료증 발급과 함께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익산=장양원기자

익산서동축제 성공 개최 '머리맞대'

5월 27일~29일 서동선발·무왕 즉위행차 퍼레이드 등 행사 다채

익산시가 '익산서동축제' 개최 60일을 앞두고 성공적 축제추진을 위해 한웅재 익산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29일 농촌테마공원에서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익산시 전부서가 참여한 가운데 부서별 담당업무와 축제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전달했다.

시 직원들은 이날 "축제장소가 금마일원으로 변경돼 개최되는 만큼 이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각 부서의 맞은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해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익산서동축제'는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축제 행사장이 금마서동공원을 비롯한 금마지역으로 바뀌어 백제 역사문화 현장에서 개최된다.

'백제의 숨결, 천년의 사랑'이란 주제 속에 '백제왕도 익산! 세계를 품다'라는 슬로건을 갖고 열리는 이번 축제는 서동축제의 정체성과 역사성이 강화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꾸며져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주요 행사는 '서동선발대회', '무왕즉위행차 퍼레이드', 주제공연 '무왕의 꿈' 등 역사 문화축제에 걸 맞는 프로그램들이 진행된다.

시민들이 동참하는 무왕즉위행차 퍼레이드는 역사의 현장인 금마면 일원에서 펼쳐져 그 의미를 더한다.

특히 올해는 서동이라는 인물에 초점을 두고 이를 부각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개막식에서 서동선발대회를 메인 프로그램으로 이슈화한다.

서동요 어린이 합창제를 비롯해 서동선화 주니어 선발대회가 열리고 서동마를 소재로 한 다양하고 맛있는 마음식을 개발하고 선보인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항 화물유치단, 침체된 지역경기 활력소 제공

컨테이너 인센티브 홍보

군산시가 국내외 선사 및 화주·포워더에 대한 전 방위 포트세일을 통해 물동량 부족으로 침체에 빠진 군산항의 활성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지난 3월초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군산항 화물유치단은 군산시를 중심으로 전라북도, 군산해수청, 하역사, 선사, 포워더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군산항 화물 유치단은 매년 도내 기업체 20여개사 이상을 직접 방문해 군산항 시설과 정기항로를 소개하고 군산항 이용 시 제공되는 컨테이너 인센티브를 홍보함으로써 군산항에 대한 선·화주의 관심을 높이고 있으며 올해는 도내 및 인근 충남권 화주 30개사를 방문하여 활동할 계획이다.

또한 화물유치단은 국내 중견선사 2개사와 동남아 항로 개설을 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으며,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올 하반기에는 군산항에서 동남아(홍콩, 베트남)로 직접 수출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기업체의 물류비 절감을 통해 침체에 빠진 지역 경기 활성화와 물동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항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 일자리정보센터 새단장 본격적 업무 돌입

군산시 일자리정보센터가 청사 1층 토지정보과 민원실내에 상담실을 새로이 정비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일자리정보센터는 연령별, 개인별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취업 전반에 관한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구직자에게는 직장을, 기업에는 필요한 인재를 찾아주는 One-Stop 서비스를 지원한다.

일자리정보센터는 특히 찾아가는 구인·구직개척단을 주2회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세대별 적합한 취업상담을 통해 구직기술 향상, 개인별 이력서 작성법, 자기소개서 컨설팅, 심층상담 등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일자리정보센터(063-454-4841~2)에 문의하면 된다.

/군산=문정곤 기자

군산경찰서 '찾아가는 치안설명회'

군산경찰서(서장 김동봉)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치안행정을 위해 '찾아가는 치안설명회'를 개최하며 4대 사회악 근절 등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희망의 새경찰 구현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군산경찰은 29일 성산면사무소에서 각 기관장, 이장, 시의원, 협력단체원 및 경찰서 각 과장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의 마음을 여는 찾아가는 치안설명회자리를 마련했다.

경찰서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군산경찰 치안정책인 4대 사회악 근절, 비정상의 정상화, 교통안전 선진화 등 주요 국정과제 내용을 전달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여론을 수렴해 치안정책을 실현하는 자리가 됐다.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일부 교통안전시설 보강과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주) 코포스

청결한 주방문화를 창조하는 기업

각 지역 총판 및 딜러모집 (여성에게 유리한 사업입니다.)

광고 게제기간동안 공동구매시 설치비 30%할인 행사합니다.

코포스에서는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게 "새로운 형태의 창업"을 제안합니다.

홈페이지 www.seeseri.com / www.씨서리.com을 방문하시면

상품정보, 각종동영상, 자세한 자료, 사업의 비젼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 : 이병기 010-5628-1256. see8709@naver.com